

전시체제기(1937-1945) 노래운동과 감정의 문화정치

황 수 임*

차 례

- | | |
|---|-------------------------|
| 1. 서론 | 3. 노래운동과 건전·명랑담론의 감정 정치 |
| 2. 국가동원과 노래운동: 전시 이데올로기의 일상화와 내면화 | 1) 조선총독부의 통치 전략과 감정 통제 |
| 1) 조선문예회와 건전가요운동 | 2) 건전·명랑담론과 음악의 정치성 |
| 2) 조선문예회와 국민정신총동원 연맹: 전시 동원의 논리와 대중적 확산 | 3) 노래운동의 감정 동원과 정서 통제 |
| 3) 조선음악협회와 국민총력조선 연맹의 협력과 연대 | 4. 결론 |
| 4) 조선음악협회와 국민개창운동 | |

국문초록

이 글은 전시체제기 노래운동이 감정 정치를 수행하는 선전 기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선문예회와 조선음악협회가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등 동원기구와 협력하

* 부산대학교 강사

여 전개한 노래운동의 과정에서 제작·보급된 악보를 분석하고 그 노래의 정치적 맥락과 협력 구조, 보급 경로, 노랫말의 주제와 음악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노래운동은 ‘건전’과 ‘명량’이라는 감정 기조를 내세우며 대중의 감정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직하였다. 각종 행사와 집단 활동에서 가창된 노래들은 권위에 대한 순응과 후방 대중의 헌신, 전쟁 동원의 정서적 수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개인의 일상 리듬을 전시체제에 종속시켰다. 내선일체, 충후봉공, 충동원과 같은 통치 이념은 노랫말의 중심 주제였으며, 부점리듬이 두드러진 2박 계열의 일본 군가 양식은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정서적으로 내면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논문은 전시체제기 음악문화를 감정 정치의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감정 정치를 가능케 한 노래운동의 구조를 성찰하는 과정은 오늘날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책무를 되새기게 한다.

주제어: 노래운동, 국민개창운동, 조선문예회, 조선음악협회, 감정 정치, 애국행진곡, 건전, 명량, 가창지도대, 국민총력조선연맹

1. 서론

예로부터 노래는 사람들 간의 감정 표현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문화적 행위였다. ‘노래’라는 말은 ‘놀애’에서 유래한 것으로, ‘놀-’ 어간에 명사 파생 접사 ‘-애’가 결합한 형태다.¹⁾ 이후 음운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노래’로 정착하였다. 이 어원은 노래가 예술의 한 형식으로 자리

1) 『석보상절』(1447)과 『월인석보』(1459) 등 15세기 문헌에서 ‘놀애’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잡기 이전부터 놀이로서 기능해 왔음을 시사한다. 특별한 도구 없이 목소리만으로 즐길 수 있는 노래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즉각적이고도 근원적인 매개다.

그러나 노래가 언제나 자율적 형식으로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특정한 시대에 권력은 노래의 오락성과 정서적 감응력을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계몽·국민교화·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특정 곡목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감정과 행위를 체제에 종속시키고자 했다.²⁾ 이러한 전략은 전시체제기(1937-1945)에 전개된 노래운동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은 조선을 전시체제로 끌어들이는 분기점이 되었다. 전쟁 수행의 논리에 따라 식민지 조선은 재편되었고, 1938년 ‘국가총동원법’ 공포를 계기로 더욱 체계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한반도를 전쟁 수행의 전략적 후방 기지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과 사회 전반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감정을 물자와 인력 동원에 필적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였다. 이때 노래는 대중의 감정을 조직하고 일상의 정서를 조율하는 효과적인 매개이자 은밀하면서도 지속적인 정치적 기제로 작동하였다. 식민권력은 국민정신작흥운동(1932)과 심전개발운동(1935)으로 전개된 사상 통제의 흐름을 계승·강화하여 노래운동에 접목시킴으로써 전시 총동원 체제하 조선인을 ‘총후(銃後)’ 국민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조선문예회(1937)와 조선음악협회(1941)는 조선총독부와 관계 조직의 기획에 따라 군국주의적 정서 확산을 목표로 노래의 창작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³⁾ 제작된 노래들은 ‘건전’과 ‘명량’이라는 정서를

2) 이충호 편역, 『조선통치 비화: 일제강점기 문화정치의 실상』, 국학자료원, 2012; 황수임·이순욱, 「1950-1960년대 국민개창운동의 전개와 논리」, 『인문과학』 제96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5, 137-180쪽; 김희진, 「국가 재건의 날실과 예술의 씨실: 국민개창운동추진회」, 『역사문화연구』 제7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9, 159-188쪽.

3) 조선문예회와 조선음악협회 외에도 내선일체 음악정책을 표방하면서 다양한 공연 활동을 전개한 경성음악협회가 있다. 이 협회는 조선음악협회의 출범과 연계

앞세워 전시 이데올로기를 감정의 층위에서 각인시키고, 복종과 헌신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였다. 라디오방송과 음반, 노래책 보급, 그리고 일상 공간에까지 파고든 가창지도대의 활동은 노래를 감정 통치의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주요 동력이었다.

감정 통제가 물리적 동원만큼이나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설정된 상황에서 음악가들은 감정 통치의 매개자로 동원되어 군국주의 정서를 담은 노래를 창작하거나 일본 전시가요를 이식함으로써 전시 이데올로기의 정서적 일체화를 촉진하였다.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는 어휘와 정동적 리듬으로 제작된 노래는 감정 차원에서 전시 이데올로기를 각인시키는 도구로 작용했다. 전황이 악화되고 패망이 임박했던 시점에도 『군가·애국가집』(신흥서관, 1945.7)이 간행된 사실은 노래가 전시 동원과 민심 결속의 수단으로 중시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전시체제기 노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식민권력이 기획하고 유통한 노래들이 선전 전략의 효과적인 매개였음을 밝히고, 음악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해명하는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였다.⁴⁾ 그중 제목만 전하던 『우리들의 노래(我等の歌)』를 발굴하고 수록곡을 분석한 강태구·김수현의 연구는 전시체제하 노래의 선전 기능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가창 맥락과 수용 양상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연구의

되는 선행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노래운동을 직접적으로 주도한 단체가 아니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제외한다.

- 4) 강태구·김수현, 「친일·군국주의 선동 국민개창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我等の歌—愛國歌曲集』」, 『근대서지』 제29호, 근대서지학회, 2024, 401-415쪽; 이지선,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음악정책: 국민가의 제정과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9호,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269-290쪽; 이지선,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음악정책 2: 국민개창운동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4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7-26쪽; 이경분, 「식민지 조선의 음악문화에 나타난 쇼와천황의 청각적 이미지」, 『인문과학』 제96호, 2012, 209-244쪽; 이동순, 「일제말 군국가요(軍國歌謠)의 발표현황과 실태」, 『한민족어문학』 제59호, 한민족어문학회, 2011, 369-400쪽; 김창욱, 「일제 팻쇼체제기의 친일음악운동」, 『음악과 민족』 제10호, 민족음악연구소, 1995, 265-285쪽.

완결성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논의 또한 음악정책의 제도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해 노래가 감정 통제의 차원에서 대중의 정서를 어떻게 조직했는가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전시체제기 노래운동을 감정 정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문예회와 조선음악협회가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등 전시 동원기구와 협력하여 전개한 노래운동을 중심으로 노래의 제작·보급 양상과 그 속에 담긴 감정 유형이 군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래운동의 감정 정치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대 창작·보급된 노래를 수집해 실증적 분석의 자료로 삼을 것이다. 더불어 『매일신보』, 『경성일보』, 『동아일보』, 『조선신문』, 『조선일보』, 『부산일보』 등 주요 신문과 『신시대』, 『녹기(綠旗)』, 『문화조선』 등 동시대에 발간된 잡지, 그리고 『총동원』, 『독서(讀書)』, 『조선연합청년단발단식 기념 사진첩』, 『조선총독부 관보(朝鮮總督府 官報)』, 『국민정신총동원 실시 개요』, 『주보』, 『반도의 국민총력운동(半島ノ國民總力運動)』, 『국체의 본의와 내선일체(國體の本義と內鮮一體)』 등 조선총독부와 관련 기관의 간행물을 교차 활용하겠다. 감정 동원을 통해 지배 이념을 내면화하려는 전략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시체제기 노래운동이 수행한 감정 정치의 기제를 분석하는 일은 예술의 정치성과 윤리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국가동원과 노래운동: 전시 이데올로기의 일상화와 내면화

중일전쟁 직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전쟁 동원 체제로 급격히 재편하

였으며, 조선인을 진정한 황국신민으로 통합하려는 내선일체 정책을 본격화했다. 특히 사상 통합은 문화정책의 중요한 기조로 자리 잡았고, 노래는 체제에 대한 충성을 내면화하는 전략적 매체로 주목받았다. 지배담론을 강화하는 노래의 제작과 보급은 전시체제가 문화행정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고, 체제 선전과 감정 통제의 실질적 도구로 기능했다.⁵⁾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개된 ‘건전가요운동’과 ‘국민개창운동’은 전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감정 규범을 제시하면서 대중의 정서를 재편하고 내면화하였다.

노래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단체는 조선문예회(1937.5)와 조선음악협회(1941.1)였다.⁶⁾ 각각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라는 국면에서 조직된 이 두 단체는 일본 제국의 문화통제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가요대회, 강연회, 가창지도대 운영 및 가요집 발간 등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정서를 대중의 일상에 침투시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이들

5) 조선중앙정보위원회는 시국 인식을 주입하기 위해 문화 선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내선문(內鮮文)으로 된 군가 형식의 노래 제작과 보급을 중심 사무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변은진·장순순, 『전시체제가 여론 통제(2)-판권기구와 조사』, 동북아역사재단, 2022, 25-35쪽.

6) 조선문예회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합동으로 조직한 단체로, 음악, 문학, 언론, 교육 등 식민지 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독서』(1937)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창립 당시 구성원을 살펴보면, 조선 측 주요 인사로는 이종태, 함화진(이왕직아악부), 하규일(정악전습소), 현제명(연희전문학교), 김영환(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윤성덕, 박경호(이화여자전문학교), 김억, 심우섭(경성중앙방송국), 홍영후, 최남선, 양주동(송실전문학교), 손진태(보성전문학교), 김소운, 방응모(조선일보사), 이상협(매일신보사) 등이 있었고, 일본 측에는 徳田三十四(이왕직아악부), 大場勇之助(제일고등여학교), 吉澤實, 宮原眞太(경성사범학교), 高本市之助, 佐藤芳亮(경성제국대학), 鎌田澤一郎, 上田忠男, 萩山秀雄, 田中初夫(총독부도서관), 安藤芳亮(경성여자사범학교), 杉本長夫(법학전문학교), 高本千應(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阿宮儀一(용산중학교), 鈴木美佐保(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등이 참여하였다. 조선총독부도서관, 『讀書』 제1권 제3호, 朝鮮讀書聯盟, 1937, 7쪽. 조선음악협회의 회원 구성에 대해서는 노동은, 「노동은의 ‘알고 싶다’ 10: 조선음악협회는 어떤 친일단체이었는가?」 1, 『음악과 민족』, 민족음악학회, 1997, 54-57쪽 참조.

단체는 조선총독부의 정치 기획과 긴밀히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1) 조선문예회와 건전가요운동

조선문예회는 조선가요협회(1929)에 이어 유행가의 퇴폐성을 비판하고 건전한 가요를 보급하기 위해 한층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가요협회가 퇴폐 가요의 척결에 주력했다면, 조선문예회는 전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정서를 일상에 스며들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단체는 출범 당시 ‘조선문화의 재건’을 내세우며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구현을 설립 취지로 삼았다. 이는 총독부의 문화통제 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이었다. ‘시국 인식의 철저는 노래로부터’라는 표어가 말해주듯이, 이들의 활동은 결국 대중의 시국 인식을 주조하고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⁷⁾ 이에 따라 전시체제의 주요 동원 세력으로 간주된 조선의 청소년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⁸⁾ 1937년 7월 11일 제1회 신작가요발표회를 시작으로 9월 15일 시국가요 시연회, 9월 30일 애국가요대회 등을 통해 신작들을 대거 발표하며 각종 대중 행사에서 사용할 노래를 제공하였다.⁹⁾ 제1회 신작가요발표회에서 연주된 곡은 조선문예회 소속 회원들의 작품들로만 구성하였다. 당시 언론 기사, 잡지 『讀書』에 실린 자료, 그리고 발표에 앞서 열린 시연회를 통해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¹⁰⁾

7) 조선문예회는 ‘시국 인식의 철저는 노래로부터’라는 표어를 내걸고 사기를 고취하였으며, 총후의 지정(總後の指定)을 노래하는 가요의 창작과 보급에 주력하였다. 이들은 <신국일본>(寺本喜一 사, 安藤芳亮 곡) 외 10여 곡을 이왕직아악부에서 발표하였다.

8) 「朝鮮文藝會で初の作品演奏會」, 『경성일보』, 1937.6.18, 2면.

9) 「조선문예회」, 『경성일보』, 1937.7.11, 2면; 「조선문예회 신작가요 발표 제1회로 11일 밤」, 『매일신보』, 1937.7.12, 2면; 「조선문예회 시국가요 시연회 개최」, 『매일신보』, 1937.9.12, 2면; 「보정(保定)합락축하·황군감사대음악회, 애국가요대회 조선문예회 신작 발표」, 『경성일보』, 1937.9.30, 4면.

10) 「조선문예회 작품 시연회」, 『조선신문』, 1937.6.15, 7면; 조선총독부도서관, 『독서』

발표곡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각 곡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메시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선청년가>(田中初夫 사, 大場勇之助 곡), <근로가>(杉本長夫 사, 吉澤實 곡), <우리는 소년이다(僕等は少年)>(上田忠南 사, 이종태 곡)는 청년·소년을 주체로 호명하며, 근면성과 집단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국에 충성하는 신민(臣民)의 감정 구조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한다. <그리운 조선(なつかしき조선)>(田中初夫 사, 이종태 곡), <상쾌한 조선(爽かなる朝鮮)>(寺本喜一 사), <한강소패(漢江小唄)>(徳田三十四 사, 大場勇之助 곡), <동산>(최남선 사, 이면상 곡), <내일>(최남선 사, 이종태 곡), <조선>(寺本一郎 사, 大場勇之助 곡) 등의 곡은 조선을 밝고 순응적인 공간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중 <한강소패>는 일본 전통 가창 형식인 소패(小唄)라는 용어를 차용함으로써 조선의 풍경과 정서를 일본문화의 틀 안에 편입하였다.¹¹⁾ <반딧불이(螢)>(徳田三十四 사, 吉澤實 곡)는 희망, 순수, 사향의식 등을 상징하며 그 자체로 평화롭고 순수한 이미지를 그려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목에서 낯은 전통과 비효율적인 관습을 암시하는 <오래된 조개껍질(古き貝殻)>(上田忠男 사)은 신체제에 적합한 정서와 윤리를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각 곡의 제목은 그 자체로 체제의 이념과 정서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적 기호로 작용하였으며, 당대 문화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요한 매개로 기능했다.


조선문예회는 특히 <조선청년가>의 보급에 집중하였다.¹²⁾ 중일전쟁

제1권 제4호, 조선독서연맹, 1937, 13-15쪽; 『민요시연회』, 『조선신문』, 1937.6.8, 7면.
11) 소패(小唄, こうた)는 일본의 전통 노래 형식 중 하나로, 서정적이고 짧은 가사를 사미센 반주에 맞춰 부른다. 에도시대에 시작해 메이지시대에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일본 전통음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12) 방송에서는 <조선청년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신문과 기타 매체를 통해 악보를 함께 실어 적극적으로 보급했다. 『라디오』, 『조선일보』, 1937.9.8, 6면; 『라디오』, 『조선일보』, 1937.11.6, 6면; 『朝鮮青年歌 朝鮮文藝會で作詩作曲』, 『경성일보』, 1937.8.15, 4면; 『朝鮮青年歌 朝鮮文藝會で作詩作曲』, 『경성일보』, 1937.8.15, 4면; 조선총독부도서관, 『독서』 제1권 제4호, 조선독서연맹, 1937, 13쪽.

의 발발로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을 규율하고 집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주체로 재편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반영하였다.

朝鮮青年歌



1. 오너라 젊은이여
 이리 와서 조선의 여명에 서라
 아, 우리 조선 청년
 희망의 찬란한 햇빛 받으며
 이곳에 만들어라 즐거운 향토생활을

2. 모여라 젊은이여
 황국의 역사를 짊어지고 가자
 아, 우리 조선 청년
 조상의 정화를 이어받은
 이곳을 찬양하라 아름다운
 향토생활을

<악보 1> <조선청년가>의 악보와 가사

위 악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청년가>는 일본어 가창을 전제로 제작되었으며, 노랫말은 식민지 청년에게 부여된 정서와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조선의 여명에 서라’, ‘희망의 찬란한 햇빛’이라는 표현은 청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긍정하도록 이끌고, 그 정체성을 제국의 체계 안에 동화시킨다. 일본에서 ‘해’가 일왕을 상징하는 은유적 기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노래는 일왕 중심의 질서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찬란한 햇빛은 일왕의 은혜이자 제국의 상징적 빛으로 제시되며, 그 아래에 놓인 조선 청년은 스스로를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자리매김되는 감정 구조에 포섭된다. 이때 강조되는 ‘향토생활’은 청년을 지역사회의 노동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향토를 제국의 후방인 총후의 공간으로 규정하고, 정신적·물질적 봉공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기능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용한다. 또한, ‘황국의 역사를 짊어지고 가자’는 구절은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을 노골적으로 요청할 뿐만 아니라 조선 청년의 정체성을 제국 질서에 정렬시키려는 통치 이념을 숨기지 않는다. 행진곡풍으로 작곡된 이 곡은 메이지기 창가에서 자주 사용된 2/4박자에 ‘시’가 빠진 장음계를 기반으로 경쾌함을 주는 부점리듬(뽕코부시)을 반복 사용하여 가사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전달한다.¹³⁾

<조선청년가>는 ‘보정합락 축하·황군감사 대음악회’라는 부제가 붙은 ‘애국가요대회’에서 남성 성악가 전원의 제창으로 불려졌다.¹⁴⁾ 2부의 첫 곡으로 연주되었지만 1부의 첫 곡인 <신일본가(新國日本)>(寺本喜一 사, 安藤芳亮 곡)와 함께 공연의 시작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 노래의 상징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¹⁵⁾ 이 곡은 조선연합청년단 발단식에서도 불려졌다. 이 자리에서 조선연합청년단은 제국의 정신을 구현하고 충후의 중책을 맡을 것을 맹세했으며, 신민으로서 군국에 보답할 것을 다짐하며 <조선청년가>를 집단 가창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남충독은 황실의 존속과 제국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이야말로 조선 청년에게 주어

13) 일본의 최초 교과서인 『소학창가집』 전 3편과 『심상소학창가』 전 6편에 수록된 209곡 중 4/4와 2/4가 82%를 차지하였고, 그외 3/4, 6/8, 2/2 순으로 나타난다. 박선희, 『메이지시대의 창가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110-161쪽. 또한, 부점리듬(뽕코부시)은 2/4 또는 4/4박자에서 1박을 ♩로 표현되며, 마치 뛰어오르거나 건너뛰는 듯한 경쾌한 느낌을 준다.

14) 『愛國歌謠大會 朝鮮文藝會 新作 發表, 保定陷落萬歲聽け銃後の大合唱!』, 會費五十錢(學生三十錢)剩餘金は皇軍慰問金に獻納, 卅日(金)夜七時・京城府民館, 『경성일보』, 1937.9.26, 4면.

15) ‘애국가요대회’에서 발표된 노래는 다음과 같다. <정의의 개선가(正義の凱歌)>(최남선 사, 흥난파 곡), <충후의 의용(銃後義勇)>(최남선 사, 이면상 곡), <충후>(德田三十四 사, 이종태 곡), <방호단가(防護團歌)>(최남선 사, 이종태 곡), <전장의 가을(戰場の秋)>(上田忠南 사, 이면상 곡), <중군 간호부의 노래(從軍看護婦のうた)>(김억 사, 이면상 곡), <정의의 군대여(正義の師よ)>(김억 사, 이면상 곡), <장성을 지키는 수호자(長城の把守)>(최남선 사, 현제명 곡), <김소좌를 그리며(金少佐を思ふ)>(최남선 사, 이종태 곡), <작별 인사(お見送り)>(土生よねさく 사, 현제명 곡), <공군의 노래(空軍の歌)>(杉本長夫 사, 흥난파 곡) 등이다. 작곡에 참여한 이면상, 박경호, 흥난파는 지휘를 맡아 무대를 이끌었고, 현제명, 이인선, 김연순, 이덕환은 독창자로 출연하였다.

진 가장 중대한 책임이자 영광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⁶⁾



<그림 1> 조선연합청년단의 표장과 선언·선서문¹⁷⁾

조선연합청년단의 표장은 일본 국기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킨다. 조선 총독부 사회교육과가 기획한 이 표장은 ‘靑’자를 전면에 배치하여 조선 청년의 단결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제국 일본에 대한 충성과 복속을 시각적으로 각인하기 위해 일장기의 도상 위에 배치한 것이다.¹⁸⁾ 이러한 시각적 구도와 함께 <조선청년가>는 조선연합청년단이 주관한 지도강습회 및 각종 행사에서 반복적으로 가창되었고, 이러한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청년 이념의 내면화를 도모해 나갔다.¹⁹⁾ 1938년 2월 지원병령이 17세 이상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5세에서 20세까지의 경성부 연합청년단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실시하였다.²⁰⁾ 이는 청년층을 신체적으로 정비하고 전시 동원체

16) 「책무를 통감하라 결단식에서」, 『조선일보』, 1938.9.25, 2면.
 17) 『조선연합청년단발단식 기념 사진첩』, 조선연합청년단, 1938, 6쪽.
 18) 「연합청년단기」, 『동아일보』, 1938.8.16, 2면; 「청년연합단기 입훈식」, 『조선일보』, 1938.8.16, 2면.
 19) 「청년단 지도강습회 개최」, 『동아일보』, 1937.12.2, 2면. 이날 진행된 지도강습회에서는 <조선청년가>를 작곡한 오오바 유노스케(大場勇之助)가 직접 가창 지도를 맡았다.
 20) 이 검사는 당시 청년들의 신체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국민 체격 향상 정책 수립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실시한 것이다. 「청년 단원의 신체를 검사」, 『동아일보』, 1938.3.4, 2면.

제를 준비하는 기초 작업으로 이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규율하는 과정은 군사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치적 의도와 일치한다. <조선청년가>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청년들에게 권력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또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하 총동원연맹)에 이어 조선연합청년단이 결성된 것은 전시체제하에서 ‘총동원’이라는 제국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²¹⁾ 조선문예회는 조선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명량한 사회 조성을 위해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총동원연맹 체제에서 그 역할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동원연맹의 기능과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조선문예회와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전시 동원의 논리와 대중적 확산

1938년 중일전쟁 발발 1주년을 기점으로 출범한 총동원연맹은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현하는 전시 동원 체제의 핵심 기구였다. 연맹의 명칭은 곧 이념을 드러낸다. ‘국민’은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일한 위치에 놓아 민족적 경계를 허물고 황국신민으로 포섭하려는 의도를 함축했고, ‘총동원’은 국가총동원법에 입각한 인적·물적 자원의 중앙집중적 통제를 뜻했다. 여기에 ‘정신’을 결합한 표현은 전쟁의 긴박성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감정과 문화적 표현까지 통제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²²⁾

총동원연맹은 전시체제의 통치 논리를 생활 단위로 확장하기 위해 보

21) 「총동원연맹과 연합청년단」, 『조선일보』, 1938.9.24, 1면.

22) 이러한 지향점은 『총동원』 창간호의 서언에서 확인된다. “국민정신이란 곧 일본 정신을 의미하며, 전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본정신을 드높이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시국에 대응하는 것이 국민정신총동원의 중대한 요점이다.” 『創刊の言葉』, 『총동원』 창간호, 국민총동원조선연맹, 1939.6, 1쪽; 『朝鮮總督府 官報』 제3391호, 1938.5.10.

동 정(町)·동(洞)·리(里) 단위로 인접한 이웃끼리 10가구 단위의 ‘애국반’을 조직하였다. 노래를 비롯한 전시 이데올로기의 각 선전 매체는 이러한 조직망을 통해 각 가정과 개인의 삶에 침투하여 정서와 인식의 재편을 유도하였다. 연맹 정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애국반원들에게는 <바다로 가면(海行かば)>, <애국행진곡>, <조선연맹가> 등이 수록된 수첩을 배부하여 연맹의 이념을 더욱 강하게 내면화하려 했다. 이 사실은 생활 단위 조직을 통한 이념 주입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²³⁾

이 가운데 <애국행진곡>은 천황 중심의 일본정신과 내선일체의 이념을 표현한 곡으로, 이데올로기적 의미와 정치적 목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⁴⁾ 이 곡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볍고 쾌활하게 부를 수 있어야 하며, 부를 때는 일본정신의 약동이 느껴지고, 위엄과 권위를 지니 되 박력 있고 경쾌한 행진곡이어야 할 것’이라는 내각정보부의 공모 조건에 따라 선정된 노래다. 이후 신문과 잡지, 라디오, 음반, 대중 집회 등

23) 「애국반원에게 연맹 강령 주지」, 『매일신보』, 1939.12.14, 4면. <바다로 가면>은 NHK 위촉곡으로, 일본 제국이 충성과 순국의 이념을 내면화하기 위해 조선 민중에게 반복적으로 부르게 한 대표적인 프로파간다 곡이다. 가사 내용은 ‘바다로 가면 물에 잠긴 시신이 되리. 산으로 가면 물에 덮인 시신이 되리. 천황의 곁에서야말로 죽고 싶으니, 뒤 돌아보지 않으리’로, 일본 제국의 군국주의 이념과 순국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24)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결성의 성의(盛儀)」, 『동아일보』, 1938.7.7, 2면. 이 노래는 1941년 3월 마쓰오카 요스케 외상이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괴벨스 선전상의 주선으로 연주되었을 만큼 당시 일본 제국을 상징하는 음악이었다. 작곡자는 해군 군악대장을 지낸 세토구치 토우키치(瀬戸口藤吉)로,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중장으로 투병 중인 퇴역 군인이었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 음악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군함행진곡>, <시키시마함 행진곡>, <군함기의 노래> 등 다수의 군가를 작곡했다. 고향인 가고시마현 타루미즈시에서는 매년 ‘세토구치 도키치 기념 행진곡 콩쿠르’를 열어 그의 음악적 유산을 기리고 있다. 辻田眞佐憲, 『日本の軍歌 國民的舎の歴史』, 幻冬舎新書, 2014, 165-168쪽; 堀内敬三, 『日本の軍歌』, 일본음악잡지주식회사, 1944, 281-283쪽; 李有姬, 「明治・昭和軍歌にみる近代の特徴: 楽曲・テーマ・言語表現を中心に」, 大阪大學校 博士論文, 2017, 112쪽.

을 통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²⁵⁾



1. 보라, 동해 하늘 밝아오고 옥일(旭日)이 높이 떠올라 빛나면 천지의 기운은 힘차게 솟구치고 희망은 대팔주(大八洲)의 땅 위에서 꿈들댄다
아, 맑고 밝은 아침 구름 위로 우뚝 솟은 후지산의 모습이야말로
금구무결(金甌無缺)하여 흔들림 없는 우리 일본의 참된 자랑이로다
2. 일어나라 일계(一系)의 천황을 영원한 빛으로 우러르며 신민인 우리 모두는 그 위엄에 부응할 중대한 사명을 따르자
나아가자, 팔괘를 하나의 집으로 삼아(八紘を宇) 사해의 사람들을 이끌며 참된 평화를 세우리니 이 이상은 꽃처럼 피어 향기를 퍼뜨리리라
3. 지금까지 우리 위에 몇 번이나 시련의 폭풍이 몰아쳤다 해도
그 정의를 단호히 지켜라 나아가길 오직 하나뿐
아, 아득한 신대(神代)로부터 울려온 발걸음의 리듬을 이어받아
대행진이 향하는 그 앞길에 황국은 영원히 번영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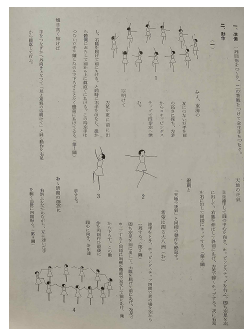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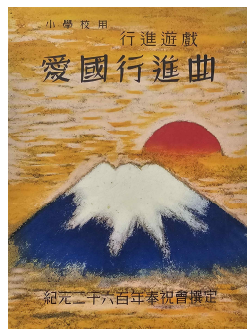
<악보 2> <애국행진곡>의 악보와 가사²⁶⁾

25) 堀内敬三, 『日本の軍歌: 定本』, 實業之日本社, 1969, 298-300쪽. 당시 높은 문맹률로 인해 문자 기반 선전의 효과에 한계가 있던 조선사회에서 라디오는 노래를 통한 이념 전달에 효과적인 매체로 주목되었고, 식민당국과 관련 기관들은 라디오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선방송협회와 전기회사는 라디오 수신료 및 전기를 인하였으며, 체신국은 각지에 방송국을 신설하는 한편 농촌 지역에 공중 청취용 무료 라디오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정신동원 선전망을 빠르게 구축하였다. 아울러 경성방송국은 방송 프로그램을 확충하였으며, 지방 방송국장들은 회의를 열어 조선인의 사회적 조건에 부합하는 조선어 방송 편성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반적인 방송 체계를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해 나갔다.

26) 紀元二千六百年奉祝會 撰定, 小學校用 行進遊戯 『愛國行進曲』, 目黒書店, 1938, 4-5쪽.

이 노래는 공모 조건에 맞추어 2/4박자의 행진곡풍과 부점리듬에 기반한 동기의 반복을 통해 경쾌한 정서를 환기하면서도 40마디에 이르는 비교적 긴 구성으로 긴장감과 무게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노래 선율에서는 ‘시’음을 배제한 장음계(十抜き 長音階)를 사용하여 당시 일본 군가에서 자주 관찰되는 음계적 특징과 일정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노랫말은 일왕을 중심으로 한 제국의 정체성을 내면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지배에 대한 이상을 정의·평화·이상이라는 언어로 미화함으로써 전시 동원의 정당성을 감성적으로 설득한다. ‘동해’와 ‘육일’은 떠오르는 태양의 이미지를 활용해 일본 중심 질서를 자연의 섭리처럼 감각하게 하고, ‘천황’과 ‘신민’이라는 신성화된 위계 구도에서 충성과 헌신의 감정을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고노에내각의 정치적 기표인 ‘팔괘일우(八紘一宇)’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제국주의적 팽창 이념을 명확히 전달한다. 여기에 ‘아득한 신대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 일왕을 신화적 기원과 연결함으로써 전쟁 참여를 역사적 책무이자 정체성 계승의 사명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림 2> 『애국행진곡』(1938)의 표지와 율동1-3.

<애국행진곡>은 이러한 상징 구조를 바탕으로 공식 행사와 선전 무대에서 조선문예회 소속 성악가들이 불렀으며, 일본 제국의 이념을 전달

하는 중요한 선전 도구로 활용되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율동과 함께 부르게 하여 전시 이념을 어릴 때부터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교육 매체로도 사용되었다.

<그림 2>가 보여주듯, 이 노래와 함께 보급된 율동은 어린이로 하여금 동일한 동작을 집단적으로 반복하게 하여 신체를 통해 집단 규율과 지배 체제의 이념을 감각적으로 체득하도록 설계되었다. <애국행진곡>에 맞춘 규율화된 동작은 개별성을 억제하고 충성심, 집단정신, 희생정신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고, 전시체제에 대한 질서와 순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했다.²⁷⁾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조선문예회는 총동원의 기초 아래 일본군의 스자쵡시(石家莊) 함락을 축하하는 <황군승전의 노래(皇軍勝戰の歌)> (田中初夫 사, 大場更之助 곡)를 제작·발표하고, 모든 축하 행사에서 필창하도록 했는가 하면,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규정한 <조선연맹가>(西川好次郎 사)를 다양한 자리에서 보급하였다.²⁸⁾



<악보 3> 황군승전의 노래

27) 당시 일본 제국은 어린이를 ‘소국민’으로 규정하고, 학교와 소년애국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들을 군국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교육하고 통제하였다. 이들에게 권장된 고철 수집, 저축 장려, 위문품, 국방헌금 등은 이러한 이념을 내면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28) 「皇軍勝戰の歌」, 『매일신보』, 1937.10.16, 4면; 「皇軍勝戰の歌, 全道に唱和せしむる」, 『조선신문』, 1937.10.14, 7면; 「문예의 밤 개최」, 『매일신문』, 1939.12.18, 2면; 「학생예술가 망라 방첩방공 연예의 밤 개최」, 『조선일보』, 1940.5.12, 3면.



1. 구름이 몰아쳐 혼미한 대륙 위에 꽃 피는 아시아를 세우고자
일어난 황국이다 장부의 뒤를 지키는 이 팔뚝에 부풀어 오른 근육의 힘줄을 보라, 보아라 반도의 붉은 정성을
2. 두드리면 불이 되고 꽃처럼 피어나는 뜨거운 피의 동원이다
전시체제를 향해 곧바로 나아간다. 모두가 함께 힘차게 달린다 보라, 연맹의 총 목표에 발맞추어
3. 장기 건설 부단히 땀과 기름의 길을 간다 돌아라, 툼니바퀴여
흠날려라, 불꽃이여 머리띠를 조이고 빛나라, 쇠스랑이여 모든 직장이 전장이 되었다 일어나라, 연맹의 애국반이여
4. 우리 반도는 대륙의 병참기지다. 동양을 건설하는 요충지다
주간도 야간도 지혜와 팔, 진심으로 개척의 등원을 열며 힘을 쌓는다 나아가라, 연맹의 위대한 사명을 향해
5. 천황의 신성한 위엄(御稜威)의 바람 속을 눈부시게 휘날리며 나아가는 일본의 국기 황국을 위해 몸도 영혼도 산천도 모두 바쳐진 이 아침 흥아의 목소리가 여기에서 솟아오른다 들으라, 연맹의 행진곡을

<악보 4> <조선연맹가>의 악보와 가사²⁹⁾

이 노래는 총동원연맹을 대표하는 노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 2/4박자 28마디로 구성된 이 노래는 ‘中庸’³⁰⁾, 즉 지나

29) 『총동원』 제1권 제5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 78-79쪽.

치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보통의 템포로 부르도록 지시하면서도 부점리듬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가사의 메시지를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치환하였다. ‘혼미한 대륙 위에 꽃 피는 아시아를 세우고자 일어난 황국이라는 구절은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을 문명화 혹은 아시아 부흥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조선인의 과업으로 전가한다. 또한, ‘부풀어 오른 근육’, ‘툽니바퀴’, ‘불꽃’, ‘쇠스랑’ 등 전시 생산 활동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통해 애국반의 자발적 실천을 독려한다. 나아가 ‘피의 동원’, ‘전시체제’, ‘대륙의 병참기지’라는 표현으로 조선의 책무와 전쟁의 정당성을 이념적으로 설득하고, 무엇보다 ‘어능위(御稜威)’라는 일왕의 신성한 위엄을 상징하는 신화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왕 중심 질서에 복무하는 것이 곧 조선인의 명예로운 사명임을 각인시킨다.

이렇듯 조선문예회는 정치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군국주의적 정서를 담은 노래를 자체 제작하거나 현상 공모를 통해 선별·보급함으로써 전시체제가 요구한 사상을 감정의 층위에서 수용하게 하고, 이를 집단적 정서로 확산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3) 조선음악협회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협력과 연대

1940년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일본 중심의 번영과 평화를 선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 질서의 수립을 도모하였다. 같은 해 9월 독일·이탈리아와 군사동맹(추축국 삼국동맹, 1940.9.27)을 체결함으로써 미·영과의 대립이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군사·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통제 강화로 이어졌다.

이 무렵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내각은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국책으로 내세워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를 발족했고, 이에 따라 총동원연맹은 ‘국민총력조선연맹’(이하 총력연맹)으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국민총력운동’으로 전환하여 전시 동원 체제에 더욱 밀착된 조직으로 재편

하였다. 새롭게 정비된 총력연맹은 사무국 내에 문화부와 선전부를 두고 문화예술과 매스미디어를 정교하게 통제하였다.³⁰⁾ 문화부는 학술·예술·출판, 선전부는 보도·강연·영화·기관지 발간을 담당함으로써 문화 전반을 국가 기획에 편입했다. 특히 문화부는 과학 사상 보급, 국민 교화, 예술 정화, 출판 쇄신 등의 과제를 내걸고 통제 전략을 조직화하였다.³¹⁾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이자 문화부의 학술부문 참사인 오다가도모오(尾高朝雄)는 국민총력조선연맹 방위지도부 위원 대상 강연에서 “동양인의 정신생활을 일구고 다듬으며, 그 위에 도덕의 씨앗을 뿌리고, 사상의 싹을 틔우며, 예술과 학문의 꽃을 피워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대동아공영권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³²⁾ 이를 통해 제국주의적 문화 통치 담론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을 경작하고, 도덕을 심고, 예술을 피워낸다는 비유는 피식민지의 정신세계를 미완의 상태로 보고 이를 계몽하고 이끌어야 하는 위계 구도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대동아공영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 사상, 가치체계 전반을 통제하려는 정신적 식민화 전략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조는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적 실천 활동으로 점차 확산되었고, 그 중 하나가 총력연맹의 최하위 조직인 애국반이었다. 총동원연맹 시기와 마찬가지로 애국반은 조선인 개개인을 세분화된 단위로 편입하여 사상과 노동 동원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통로로 기능했다. 정례적으로 시행된 애국일상회와 애국반상회는 일본정신을 체계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의례적 실천의 장이었다. 각 모임에서는 국기 게양, 국가 제창, 궁성 요배, 황국신민서사 암송 등이 반복되었고, 반드시 <국민총력의 노래>(御手洗 사, 古關裕而 곡)나 <애국반의 노래>(佐藤惣之助 사,

30) 『半島ノ國民總力運動』, 조선총독부, 1941, 26-28쪽.

31) 위의 책, 조선총독부, 1941, 63-64쪽.

32) 국민총력조선연맹 방위지도부, 『國體の本義と内鮮一體』, 1941, 77쪽.

白磯嚴 곡)를 함께 듣거나 부르게 하였다.³³⁾ 이 두 노래는 총력연맹이 신도실천(臣道實踐)의 이념을 일상에 침투시키기 위해 기획한 대표적인 선전물로, 부민관에서 공식 발표된 이후 조선음악협회 소속 음악가들이 다양한 행사와 매체에 관여하며 확산을 주도하였다.³⁴⁾



- | | |
|---|--|
| <p>1. 흥아유신(興亞維新)의 아침놀음
 옥일(旭日)이 바야흐로 떠오르는
 가을
 내선일체 흔들림 없이
 단결선(團結せん) 총력이 꺾춤
 뛰어오른다
 세워라 빛나는 신질서</p> <p>2. 반도 2천3백만 애국반의 깃발 아래
 헌신보국만이 유일한 길
 총력을 다해 단련하고
 우리의 직분을 지켜내자</p> | <p>1. 랑랑 라디오다 일찍 일어나자
 모두 궁성을 향해 절하자
 함께 일하자 가가호호부터
 신체제의 해가 비추고 있다</p> <p>2. 이웃끼리는 좋은 가위되어
 낭비나 불평은 싹둑 잘라내고
 저금과 현금으로 충성을 다하자
 튼튼히 결속된 이 힘으로</p> <p>3. 역에서 정해진 자리를 지켜 마중 나가
 정오의 사이렌에 맞춰 목도하며
 흥아를 수호하는 병사의</p> |
|---|--|

33) 이종민, 「전시하 애국반 조직과 도시의 일상 통제」, 『동방학지』 제124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864-866쪽; 「‘라디오’로 반상지도 ‘총력운동의 시간’도 매일 방송」, 『매일신보』, 1941.2.19, 3면.

34) 「高かに唱へ‘國民總力の歌’, 愛婦, 國婦가歌唱會」, 『경성일보』, 1941.3.5, 2면; 「國民總力の歌 愛國班の歌マイクで唱歌 指導」, 『조선신문』, 1940.12.18, 2면; 「さあ元氣で朗かに ‘國民總力の歌’ 生る, 近く府民館で發表」, 『경성일보』, 1940.12.6, 5면; 「애국반의 노래 레코드에 취임」, 『매일신보』, 1940.11.27, 2면; 「國民總力の歌, 樂譜を配布して普及」, 『경성일보』, 1941.3.7, 4면; 「다함께 부르자! 이 노래!」, 『매일신보』, 1940.12.6, 3면; 「國民總力の歌と愛國班の歌」, 『부산일보』, 1940.12.19, 2면.

3. 팔굉일우(八紘一宇)의 큰 이상

성스러운 날은 굳게 가슴에 새겨졌네	가족으로서 후방의 기개를 보여주자
상하가 하나 되어 결의는 타오르고	4. 내선일체의 애국일
총력을 다해 협력하자	늘 좋은 일을 서로 칭찬하고
건설하자 국방의 대국가를	맞은편 세 집, 양 옆 이웃과
건설하자 국방의 대국가를	사이좋게 맺어지는 애국반

<악보 5> <국민총력의 노래>, <애국반의 노래>의 악보와 가사³⁵⁾

이들의 노래 가사는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지배 이념 속에 포섭하려는 의도를 선명히 드러낸다. 특히 ‘팔굉일우(八紘一宇)’라는 구호는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합리화하는 침략적 표어로, 세계 만국을 일왕의 권위 아래 편입시키려는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상징한다. 아울러 이웃 간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검약, 협동, 자기 절제와 같은 생활 속 실천 윤리를 구체화함으로써 전시체제에 부합하는 이상적 국민상을 제시하고 있다. ‘가위(鋏)’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낭비를 잘라낸다는 의미뿐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행동을 교정하는 기능까지 유도한다. 또한, ‘병사의 가족’, ‘내선일체’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전시체제에 순응하게 하고 이를 감정적으로 내면화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애국’은 일왕을 정점으로 한 제국 질서에 대한 전면적 복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도를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데에는 단순한 선율과 부점리듬의 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곡은 경쾌한 빠르기의 4/4박자와 6/8박자 행진곡풍으로 쓰였으며, 16~20마디 정도의 짧은 규모로 작곡되어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군국주의 동원의식을 담은 노래는 전시 정국의 흐름에 따라 점차 제도화되었고, 음악의 활용 방식도 체계적으로 확대되었다.³⁶⁾ 1941년 8월

35) 「<國民總力の歌>及び<愛國班の唄>」, 『경성일보』, 1941.1.21, 5면; 「さあ元氣で朗かに『國民總力の歌』生る, 近く府民館で發表」, 『경성일보』, 1940.12.6, 5면.

36) 『초등음악』(3-6학년용)에 수록된 114곡 가운데 전쟁의식을 고취하는 노래의 비

임전대책협의회와 같은 해 9월 조선임전보국단이 결성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임전대책 강연회가 활발히 개최되던 당시의 정세에 발맞춰 음악가들은 임전(臨戰) 체제에 부합하는 ‘건진’한 노래를 선별하고 이를 라디오와 학교 교육을 통해 일반 대중과 학생들에게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런 움직임을 다룬 좌담회 기사를 당시 언론은 ‘음악가들의 꺾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³⁷⁾ 그러나 실제 논의된 내용은 ‘꺾기’라는 말이 함의하는 저항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건진가요로 분류된 군가류의 노래를 선별하여 가집 형태로 엮어 각급 학교에 배포했으며, 라디오를 통해 대중에게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 이 좌담회에는 총력연맹의 주요 간부들과 히라마 분쥬(平間文壽)를 포함한 조선음악협회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참여했다. 언론은 이들의 의지를 ‘꺾기’로 부각하여 정권의 선전 선동에 협조하는 움직임을 마치 예술가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기초 아래 총력연맹 문화부는 대동아전쟁을 주제로 한 노랫말 공모를 실시하였고, 문화부 위원이자 조선음악협회 임원이었던 히라마 분쥬와 오오바 코노스케(大場更之助), 박경호가 심사를 맡았다. 그 결과 노구치 유우무(野口雄務) 작사, 가네다 미쓰마사(金田光正) 작곡의 <일억의 결의(一億の決意)>가 선정되었다.³⁸⁾

<일억의 결의>는 제목 그 자체가 전시체제 아래 내선일체를 상징하는 정치적 기표로 작용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억’은 조선과 대만을 포함한 일본 제국 전역을 하나의 전쟁 주체로 포섭하려는 이념적 수사가 가깝다. 그러나 1940년 당시 조선의 인구는 약 2,432만 명, 일본 본토는 약 7,311만 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억’이라는 수치는 내선일체의 구호를 수치적으로 표상하기에 적합한 상징이었다.

중은 전체의 38%에 이른다.

37) 「음악가들 꺾기 건진 음악 보급을 결의」, 『매일신보』, 1941.9.14, 2면.

38) 「연맹문화부 모집 국민가」, 『매일신보』, 1942.2.23, 4면; 「국민총력조선연맹서 모 집한 작곡 당선 발표」, 『매일신보』, 1942.3.23, 4면.



1. 검은 쇠의 힘처럼 강하게 구름이 자욱한
아시아의 공간 지키는 것은
우리 1억 국민 응징의 검을 휘두르며
대일본 지금이야말로 일어서라
2. 새로운 생명의 숨결로 넘쳐흐르며
푸르름이 우거진 아시아의 땅을 일구는
이는 우리 1억 국민
황민의 진심을 바쳐 철벽 같은 총후는
굳건하다
3. 천황의 크신 칙명을 받들어
흔들림 없는 아시아의 공영권을
세우는 이는 우리 1억 국민
공영의 질서를 새롭게 하여
건국의 이상을 살아가리

<악보 6> <일억의 결의>의 악보와 가사

이 노래는 ‘1억 국민’이라는 수사를 앞세워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포섭하고, 전쟁 수행의 동등한 주체로 자각하게 하는 정치적 장치로 기능한다. ‘응징의 검’, ‘황민’, ‘철벽’, ‘총후’, ‘천황’, ‘칙명’과 같은 표현은 제국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선인에게도 총력전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 나아가 ‘푸르름이 우거진 아시아의 땅’이나 ‘공영권’이라는 문구로 침략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일본 중심의 아시아 질서를 문명적 이상으로 미화하고 있다. 노래는 이러한 가사를 결기를 자극하는 선율에 실어 조금 빠른 속도로 ‘용장하고 명량하게(勇壯明朗に)’ 부르도록 요구한다. 노래를 통해 고양된 감정은 부르는 이를 전쟁의 주체로 몰입시키고, 듣는 이로 하여금 ‘우리 일억’이라는 동질성을 내면화하게 한다.

이처럼 조선음악협회와 총력연맹의 협력은 음악을 전시체제의 정서적 매개로 조직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국민개창운동은 노래를 감정 통제와 대중 동원의 실천적 장치로 자리매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었다.

4) 조선음악협회와 국민개창운동

이 시기 대정익찬회는 1억 국민개창운동을 제창하고 음악가들의 주도 아래 이를 확산시켰다.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던 이 운동은 1943년 2월 총력연맹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전시 생활을 뒷받침할 정서 동원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 직장에 이르기까지 가창지도대를 파견하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³⁹⁾ 시작을 알리는 총력연맹 선전부장 쓰다(津田)의 담화에서 개창운동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들은 노래 부르기를 제창한다. 아모리 곤난한 시국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항상 명량한 마음과 타는 듯한 기백을 가지는 데에는 이천오백만이 응건하고 고상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선전부에서는 조선음악협회와 협력하여 반도에서 가장 우수한 음악가들을 동원시켜, 전선 각 중요 도시와 및 일반 농촌을 순회하면서 우렁찬 국민개창운동을 전개할 터이다. 이 운동은 내지의 대정익찬회에서는 일즉부터 후지와라(藤原義江)씨 등 그 외 일류음악가를 동원하여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키어 대단히 조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선전부대에서도 얼마 전부터 각 권위들을 망라하여, 총후 국민이 힘차게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명곡 약 백여 곡을 선택하여 국민개창의 교본으로 하는 동시에, 그중의 일부를 수록하여 『우리들의 노래』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일반에게 널리 배포하는 동시에 오는 3월 26일 오후 7시부터 부민관에서 국민개창회를 개최하여 이 운동의 첫발을 내어드린 다음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선 각지에서 일제히 전개할 터이다.⁴⁰⁾ (진하계-필자)

위 담화의 주요 골자는 일본 본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민개창운동을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⁴¹⁾ 1943년 3월

39) 「불오자·노래 국민개창운동 전개」, 『매일신보』, 1942.12.1, 3면.

40) 「명량하고도 힘차게 국민개창운동을」, 『매일신보』, 1943.2.28, 2면.

41) 1943년 1월부터 일본에서는 대정익찬회의 제창 아래 일본음악문화협회, 일본축

조선인 징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당국은 노래의 형식뿐만 아니라 제작과 보급 과정까지도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쓰다는 조선음악협회와 협력하여 총후 국민들이 힘차게 부를 수 있도록 명량한 노래들을 선별하고, 이를 수록한 노래책의 배포와 국민개창회 개최 계획을 함께 밝혔다.⁴²⁾

같은 해 3월 26일 총력연맹은 선전부장의 담화에 따라 조선음악협회와 함께 ‘국민개창운동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아세아의 힘(亞細亞의 力)>, <십억의 진군(十億の進軍)>과 같이 ‘국민가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군가들을 집중적으로 불렀다.⁴³⁾ 이러한 공연 양식은 군국주의적 동원의식을 내면화하려는 개창운동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음기레코드문화협회, 음악정신대, 일본방송협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개창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 방식은 조선에도 곧바로 이식되어 보급 대상 곡목과 실행 체계 전반에 걸쳐 일본의 구조를 답습하였다. 이 운동이 일본에서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쓰다의 평가는 실제 성과의 축적이라기보다 조선으로의 확산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에 가깝다. 일본에서 제창된 지 불과 한 달 남짓만에 조선에서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은 이 운동이 대중적 성과보다는 정치적 기획과 선전 담론에 의해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 42) 때를 맞추어 매일신보사는 총 1,500원이라는 거금을 내걸고 <우리는 제국군인>, <어머니의 기원>의 가사 공모에 나섰다. 당시 쌀 80kg의 가격이 22.68원임을 감안하면, 노래사업의 무게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두 곡은 징병제 실시 축하 기간인 1943년 8월 4일 최창은, 차홍련, 경성후생실내악단이 발표하였고, 음반으로도 발매되었다.
- 43) 이날 국민개창운동대회에서는 1940년 9월 삼국동맹을 체결한 일본·독일·이탈리아의 가곡과 함께 군가류의 노래를 집중적으로 불렀다. 이 가운데 <아세아의 힘(亞細亞의 力)>은 1942년 대정익찬회와 대일본홍아동맹이 공동으로 공모·선정한 곡이며, <십억의 진군(十億の進軍)>은 같은 해 『讀賣新聞』 공모를 통해 제작된 노래로 육·해·공군의 공식 행사에서도 자주 가창되는 곡이다. 출연진으로는 현제명, 임상희, 미야모토 요시오(宮本吉雄), 오오바 코노스케(大場更之助), 박경호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반주는 경성취주악단, 학생연합합창단, 조선음악합창단, 방송국관현악단 등이 맡았다. 「청중도 함께 창화, 연맹 주최 국민개창운동대회 성황」, 『매일신보』, 1943.3.27, 3면; 「국민개창의 밤」, 『매일신보』, 1943.3.21, 2면.

국민개창운동위원회는 4-5월까지 두 달을 제1기 국민개창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바다에 가면(海ゆかば)>, <군함행진곡(軍艦行進曲)>, <거친 독수리의 노래(荒鷲の歌)>, <소국민진군가(少國民進軍歌)>, <애마진군가(愛馬進軍歌)>, <아시아의 힘(亞細亞の力)>, <10억의 진군(十億の進軍)>, <아침이다, 원기 있게(朝だ 元氣で)>, <애국의 꽃(愛國の花)>, <반도청년의 노래(半島青年の歌)> 등 총 10곡을 선정하여 이를 조선 전역에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⁴⁴⁾

총력연맹은 국민개창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부내 영화관 중 한 곳을 지정하고 상영 막간을 이용하여 국민가요를 가창하게 했으며, 총력연맹 직원들의 정기적인 합창 시간을 운영함으로써 직장과 대중문화 공간을 활용한 개창운동의 모범적인 예를 제시했다.⁴⁵⁾ 영화관에서의 가창 지도는 조선음악협회 회원들이 담당했으며, 연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첫 가창 수업은 조선음악협회 간사장인 히라마 분주가 지도하였다.⁴⁶⁾

44) 「구가하자 성세를」, 『매일신보』, 1943.3.17, 3면. 1897년 일본 해군 군악대장 세토구치 후지요시(瀬戸口藤吉)가 작곡한 <군함행진곡(軍艦行進曲)>은 일본 해군 공식 행진곡으로 제정된 곡이며, <거친 독수리의 노래(荒鷲の歌)>는 1941년 NHK의 ‘국민가요’를 통해 보급된 노래다. <소국민진군가(少國民進軍歌)>는 1942년 일본소국민문화협회에서 현상 공모 형식으로 제작된 아동 대상 군가이고, <애마진군가(愛馬進軍歌)>는 1939년 육군성 마정과와 농림성 마정국의 공모에 의해 선정·보급된 곡이다. <아침이다, 원기 있게(朝だ 元氣で)>는 1941년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가요 신곡으로 발표된 노래이며, <애국의 꽃(愛國の花)>은 1937년 JOBK 오사카 방송국에서 처음 소개된 후 이 노래를 주제가로 한 동명 영화를 1942년에 제작하기도 했다. <반도청년의 노래(半島青年の歌)>는 징병제 시행을 계기로 1942년 조선총독부 정보과의 공모를 통해 제작된 곡이다. 이처럼 노래의 제작 시기와 유통 경로는 다르지만, 모두 전시체제 속에서 정서적·이념적 동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45) 「영화관에 국민개창의 시간, 막간 이용하여 음협에서 진출 지도」, 『매일신보』, 1943.3.28, 2면.

46) 히라마 분주가 지도한 곡은 <바다로 가면>이다. 「다함께 노래부르자 연맹 직원들이 개창운동에 섰다」, 『매일신보』, 1943.4.6, 2면.



<그림 3> 문화 공간에서의 가창 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각 도연맹은 카페, 바(bar), 영화관, 백화점, 공장, 회사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지정곡을 감상하거나 직접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가 하면, 농촌과 산간 마을, 공장, 광산 등지가 창지도대를 파견해 선정된 가요 보급에 힘을 쏟았다.⁴⁷⁾ 창지도대는 성악가와 반주자로 구성된 소규모 단위(2-3명)로, 이른바 ‘대’

라기보다는 기동성을 먼저 고려한 선전공작‘반’에 가까운 형태였다.

국민개창운동은 조선음악협회 소속 전문 음악인들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음악가 특유의 카리스마와 전문가다운 실력을 바탕으로 조선 전역 60개소 이상에서 총 88,44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⁴⁸⁾ 총력연맹은 이러한 성과에 기대어 조선음악협회의 입지를 확대하여 공동 주최로 명시하고 제2기 국민개창운동의 추진을 준비하였다.⁴⁹⁾

제2기의 운동 기간은 당초 9월부터 10월까지로 계획하였으나, 군국가요의 더 많은 보급과 확산을 위해 연장하였다.⁵⁰⁾ 선정곡은 <천황의 신민(みたまわれ)>, <적이 수만이라 할지라도(敵は幾万)>, <쇠의 힘(くろ

47) 『국민개창운동 전개 국민 사기양양, 건전 정조를 육성』, 『매일신보』, 1943.4.15, 4면; 『불우자·우리들의 노래 경기도연맹서 각지로 가창 지도 행각』, 『매일신보』, 1943.4.18, 3면; 『국민가창지도대 경기도에서 각 읍면으로 파견』, 『매일신보』, 1943.4.24, 2면.

48) 『歌へ銃後の軍歌, 全鮮各地に指導隊を派遣』, 『경성일보』, 1943.8.27, 3면.

49) 1943년 8월 총력연맹 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국민개창운동의 전개 방침에 관한 논의에는 고사와 미노루(古澤實), 현제명, 오오바 유노스케, 미야모토 요시오, 이케다 가쓰시게(池田勝重), 박태현, 오노다 하지메(小野田甫)를 비롯하여 레코드협회장, 연극문화협회 상무이사, 총독부 혼다 학무과장, 다케우치 연성(鍊成)과장, 본사 영사회 부장, 매일신보 학예부장 등이 참여하였다. 『秋, 士氣の昂揚へ, 起す第二期の國民皆唱運動』, 『경성일보』, 1943.8.25, 3면.

50) 『국민개창운동 9월부터 2개월간 전개』, 『매일신보』, 1943.8.27, 3면; 『2기 국민개창운동 9월부터 3개월간 전개』, 『매일신보』, 1943.9.15, 3면.

かねの力)>, <국민진군가(國民進軍歌)>, <월월화수목금금(月月火水木金金)>, <공습이 어찌 두려울 것이나(空襲何ぞおそるべき)>, <젊은 힘(若い力)>, <애국의 꽃(愛國の花)>, <항공결전의 노래(航空決戦の唄)>, <반도청년의 노래(半島青年の歌)> 총 10곡으로, 제목에서부터 전사의 정신을 고양하고 충후의 결의를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¹⁾ 이들 곡은 대부분 짧은 행진곡풍의 반복적인 선율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를 수 있다.

그동안 ‘국민가’라는 이름으로 조선사회에 보급되던 군국가요들이 이 시기를 전후하여 ‘군가’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학교와 직장을 비롯해 청년단, 부녀자회 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군가개창회’, ‘군가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였다.⁵²⁾ 이는 국민가요가 지향한 ‘명랑’과 ‘건전’이라는 감정 언어가 점차 ‘애국’과 ‘충성’이라는 군국주의적 정서로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는 <우리는 제국의 군인>(김정의 사,

51) <천황의 신민(天皇の臣民)>은 1943년 대정익찬회가 제정한 국민가요이며, <쇠의 힘(鐵の力)>은 1939년 문부성이 아동과 소년을 ‘강건한 황국신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작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노래다. <국민진군가(國民進軍歌)>는 1940년 군사보호원·육군성·해군성의 후원을 받아 『東京日日新聞』과 『大阪毎日新聞』의 공동 공모를 통해 제작·발표되었다. <월월화수목금금(月月火水木金金)>은 1940년 해군성 군사보급부가 추천곡으로 지정하면서 군가로 편입되었고, <공습이 어찌 두려울 것이나(空襲何ぞ恐れん)>는 1942년 방공총사령부·육군성·『東京日日新聞』·『大阪毎日新聞』이 선정한 국민정신작흥가요 가운데 하나다. 또한 <항공결전의 노래(航空決戦の唄)>는 1943년 선전영화 ‘결전의 대공(決戦の大空へ)’의 주제가 <젊은 독수리의 노래(若鷲の歌)>를 가리켜 당시 언론과 보급 과정에서 사용된 별칭이다. 한편 1891년에 발표된 <적이 수만이라 할지라도(敵は幾万)>는 일본 근대 군가의 중요한 이정표로, 청일전쟁 시기에 대중적 인기를 얻었으며 군가가 애국심을 고취하고 전쟁 동원의 매개로 확산되는 전기를 마련한 곡이다.

52) 「부르자! 군가를, 부에서 부민개창운동」, 『매일신보』, 1944.8.12, 2면; 「군가개창회」, 『경성일보』, 1944.8.20, 4면; 「종로구 군가개창회」, 『매일신보』, 1944.8.25, 2면; 「朗らかに歌はう, 各區で戰意昂揚 軍歌大會」, 『경성일보』, 1944.8.12, 4면; 「歌へ高らかに, 好評の 軍歌大會」, 『경성일보』, 1944.8.12, 4면.

김용환 곡)과 <어머니의 기원>(新本景祚 사, 김기현 곡)을 현상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⁵³⁾ 감정의 방향을 ‘명랑’과 ‘건전’에서 ‘애국’과 ‘충성’으로 치환하기 위한 이 작업은 노래의 제작에서 보급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감정을 동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룩한 은혜로 부르심 받아
새로 난 반도의 사나이들이
일장기 밑으로 발을 맞춰라
우리는 이 땅과 이 하늘을
군세계 지키는 제국의 군인이다 2. 피 끓는 애국의 정성을 안고
일어선 반도의 사나이들이
불타는 희망에 발을 맞춰라
우리는 앞서간 군신들의
충혼을 이어갈 제국의 군인이다 3. 동해의 아침해 광명의 빛을
타고난 반도의 사나이들이
세계를 겨누어 대담히 가자
우리는 동아(東亞)를 새로 세울
큰 사명 등에 진 제국의 군인이다 4. 팔괘(八卦)를 한데로 세우는 이상
나타낼 반도의 사나이들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거울 거리에
세닌바리(千人針)로
일억의 감격을 모으고 섰는
용사의 어머니가 부르옵더니
이제는 소원을 풀었나이다 2. 꽃피는 정국(靖國)의 신사 앞에서
아들의 충혼과 대면을 하는
영령(英靈)의 어머니가 부르옵더니
이제는 소원을 풀었나이다 3. 사나이 장부로 세상에 나서
명(明)품에 안기여 듣던 자장가
오늘은 군대로 화답하오니
어머니는 읊니다 감격의 울음 4. 나서는 아들의 모습을 안고
묵묵히 그 뒤를 따르는 마음
돌아올을 바라지 아니하오니
군국의 어머니는 군세나이다 |
|--|---|

53) 「반도 개병의 노래 현상 모집」, 『매일신보』, 1943.3.9, 3면; 「반도 개병의 노래 당선발표회」, 『매일신보』, 1943.8.3, 2면; 「광고, 우리는 帝國軍人」, 『매일신보』, 1943.9.2, 4면.

거칠은 세기를 차넘고 가자
우리는 정의의 칼을 들고
황도를 휘날릴 제국의 군인이다

<악보 7> <우리는 제국 군인>, <어머니의 기원>의 악보와 가사⁵⁴⁾

위 악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노래들은 ‘제국의 군인’과 ‘군국의 어머니’라는 전시의 실질적인 주체들을 호출하며 충성심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두 곡은 남성과 여성의 대비를 통해 전선과 후방을 구분하고, 청년은 죽음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군인으로, 어머니는 자식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는 존재로 묘사한다. 군국주의적 감정 질서를 반영한 이 노래들은 국민개창운동의 현장에서, 이동선전대와 이동연예반의 공연에서, 그리고 유가족을 위한 위문 연예회 등에서 집단 가창 또는 감상의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 두 곡은 대부분의 노래가 일본어로 제작되고 보급된 것과 달리, 예외적으로 한국어로 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조선인의 전쟁동원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해된다.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반도의 사나이’와 ‘조선의 어머니’로 대변되는 민족적 수사는 일본어보다는 한국어로 부를 때 훨씬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음악적 측면에서는 메이지시대 창가의 전형적 2/4박자 위에 각각 요나누끼 음계와 자연단음계를 바탕으로 선율을 전개하였으며, 부점리듬과 같은 일본식 음형을 덧입혀 제국 중심의 문화위계를 은연중에 강화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노래운동을 전시 동원의 정당화와 징병제 수용을 위한 정동적 기제로 삼아 조선문예회와 조선음악

54) 「반도 개병의 노래」, 『매일신보』, 1943.8.4, 2면. <어머니의 기원> 1절 가사의 센닌바리(千人針)는 일본의 민간 신앙과 군국주의가 결합된 전쟁기 풍습으로, 천명의 여성이 붉은 실로 한 바늘씩 정성껏 꿰매 완성한 복대를 의미한다. 병사가 이를 몸에 지니고 출정하면 총알을 막아줄 것이라 여겨 가족과 이웃 여성들은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이 복대를 직접 만들어 병사에게 전달하였다.

협회를 통해 조선인의 정서를 통제하고 감정 질서를 재편하였다.

3. 노래운동과 건전·명랑담론의 감정 정치

전시체제기 노래운동은 ‘건전’과 ‘명랑’이라는 정서를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감정의 차원에서 통치이념을 내면화하려 했던 감정 정치의 대표적 사례다. 감정 정치는 특정 감정만을 공적 정서로 인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감정과 행동을 통치 질서에 정렬시킨다.⁵⁵⁾

감정은 대개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정서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권이나 정책을 정당화하고, 대중의 정서를 결집하며, 통치 질서를 재편하는 정치적 도구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음악은 감정의 흐름을 조정하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전시체제기 동안 조선총독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이념을 강화하고 조선인들의

55) ‘감정 정치(emotional politics, politics of emotion)’는 감정을 권력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질서와 이념을 정서적으로 조직하는 정치적 작동 방식을 의미한다. 감정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시도는 특정 시대나 체제에 국한되지 않고 반복되어 왔다. 예컨대 히틀러 정권은 음악, 영화, 강연 등을 통해 게르만 민족의 ‘우월감’과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강조하며 대중의 감정을 조작하고, 이를 제국주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는 동시에 ‘애국심’을 강조하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감정 정치 전략을 펼쳤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 정치가 활용되었다. 1986년 북한의 임남댐(일명 금강산댐) 착공이 수공(水攻) 위협으로 부각되었을 때,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며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여론 동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유행기 동안 정부와 언론은 ‘불안’, ‘책임감’, ‘공감’ 등의 감정을 공적 정서로 부각시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의 급속한 일상화를 독려했다. 이에 관한 연구는 사라 아메드·시우 율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마사 누스바움·조형준 율김, 『감정의 격동』1-3, 새물결, 2015; 윌리엄 레디·김학이 율김, 『감정의 향해: 감정 이론, 감정사, 프랑스 혁명』, 문학과 지성사, 2016 등이 있다.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악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특히 노래는 조선인들에게 친숙한 선전 도구로, 조선총독부는 노래운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본 제국의 이념에 대한 감정적 동화를 유도하였다.

1) 조선총독부의 통치 전략과 감정 통제

조선총독부는 ‘건전’과 ‘명량’이라는 정서를 앞세운 노래운동을 통해 전시 동원에 필요한 심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표현해야 할 감정과 배제해야 할 감정 사이의 암묵적인 경계를 설정했다. 현재명을 비롯한 음악가들은 ‘음악은 군수품이다’라는 인식을 환기하며, 제국주의 이념에 맞는 감정을 노래로 재현하고 반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전체주의적 규율을 대중에게 전파했다. ‘음악은 군수품이다’라는 문구는 전시체제하 음악가의 임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말로, 1941년 7월 28일 대본영 해군보도부 제1과장 히라이데 히데오(平出英夫)가 시국강연회에서 발언한 것이다.⁵⁶⁾ 군수품이라는 개념은 군대의 유지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우르는 것으로, 무기나 탄약뿐 아니라 병사 훈련, 사기 진작, 대중 선전을 위한 문화적 수단까지 포함될 수 있다. 해군 대외 선전의 총괄 책임자 히라이데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음악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 자원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음악가들이 제국주의 이념을 지지하고 표현할 근거를 제공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노래운동을 통해 전시 동원에 필요한 정서적 결집을 유도했던 이유 중 하나는 1939년 5월 조선총독 남차량(南次郎)의 총동원연맹 연설에서 드러난 바,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강한 적대적 인식 때문이다.⁵⁷⁾ 조선을 제국 확장의 전략적 거점으로 규정한 일본 당국에

56) 辻田眞佐憲, 『日本の軍歌、國民音樂の歴史』, 幻冬舎新書, 2014, 190쪽.

57) 1939년 5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회의에서 남총독은 “반도인은 권리만 주장하고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반도의 금일이 잇슴은 우리들 내지인에 의해 얻은 것이라는 것을 이겼다고”, “내지인은 어디까지든지 불평등한 우월감으로 우리를 압박한다.”와 같은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불신 사례를 열거하고, “내선 대비하야

있어 내선일체는 대륙 침략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적 틀이자 실천적 과제였다. 남총독은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갈등을 지적하면서, 내선일체가 조선 통치의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했다. 그는 평전양시(平戰兩時)라는 개념을 통해 평시와 전시를 아우르며 대륙정책을 실현할 중요한 기지로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⁵⁸⁾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는 것은 필수적이었고, 당국은 이를 위한 방편으로 노래에 주목했다.

1936년부터 일본 내에서는 방송 프로그램과 음반, 출판 등을 통해 건전하고 명량한 군가류의 노래들이 유통되었다.⁵⁹⁾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군가류의 노래들이 계속해서 제작·보급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다로 가면(海行かば)>, <애국행진곡(愛國行進曲)>, <애국의 꽃(愛國の花)> 등은 이러한 체계에서 생산된 곡들이며, 조선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음악회, 강연회, 집회, 방송, 음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급되었다. 저속한 유행가를 정화하겠다는 명분 아래 ‘건전’과 ‘명량’이라는 감정을 지향하며 추진된 노래운동은 내선일체를 위해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일한 정서를 공유하도록 감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했다.

2) 건전·명량담론과 음악의 정치성

노래운동이 지향한 ‘건전’과 ‘명량’은 특정한 감정 질서를 설정하려는 시도로서 감정 정치의 성격을 파악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담론은 노

생각하는 것이 가장 못습 것이다.”라며 양자 간 분열된 민심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통합을 강조한 그의 발언 속에서도 ‘반도인’과 ‘내지인’이라는 구분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내선 간 위계적 인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총동원』 제1권 제2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7, 61-69쪽.

58) 『총동원』 제1권 제2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7, 61-69쪽.

59) 李有姬, 「明治・昭和軍歌にみる近代の特徴: 樂曲・テーマ・言語表現を中心に」, 大阪大學박사논문, 2016, 97-102쪽.

래운동의 정치적 함의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당시 음악가들의 글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경호는 ‘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⁶⁰⁾

전시하의 예술은 어디까지나 건전함을 요한다 함은 함용하는 말이나 이 건전이라는 형용사는 무엇을 의미함인가. 이亦 정신 기교의 양 방면의 우수성을 말함이니, 정신적으로 건전한 작품을 우수한 기술로 연주되는 음악을 의미함이다. 그럼으로 아모리 훌륭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출연하는 기술이 열악하면 예술로서의 효과를 완전히 상실함은 물론이고 긴장되어 있는 비상시 국민의 정서 생활에 해되는 바 불소(不少)한 것이다.⁶¹⁾

박경호는 음악에서 ‘건전’을 정신적 완성도와 기술적 우수성의 조화로 정의하며, 예술가가 창작에서 정신적 깊이와 기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술가가 위기 상황에서 대중 감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의 정서를 이끌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히라이데 히데오가 ‘음악은 군수품이다’라고 언급한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히라이데가 음악을 전쟁 수행의 자원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박경호 또한 예술가가 대중 정서를 관리하고 고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겼다. 두 사람의 발언은 당시 음악이 대중의 감정을 조절하고 이념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명량’이라는 감정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60) 피아니스트 박경호(朴慶浩, 1988-1979)는 숭실전문학교와 미국 신시내티음악학교를 졸업한 뒤 이화여자전문학교, 조선문예회와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위원, 조선교향악단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방송과 무대를 오가며 음악 해설과 개창 지도를 맡았으며, 무용극 <부여회상곡>에서 관현악 지휘를 담당하였다. <부여회상곡>은 백제와 일본의 문화적 연속성을 강조한 문화기원론을 반영해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부여를 내선일체의 역사적 발상지로 부각했으며, 신궁 건립 등의 상징 사업을 통해 조선인의 협력을 유도하고자 했다.

61) 박경호, 「악단의 행적」, 『매일신보』, 1942.12.27, 2면.

대한 고민은 주경돈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의 심정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 인생을 우리 생활을 윤택 있게 그리고 더 풍부한 내용을 갖게 해 주는 힘이 잇슴으로써 그 쾌감을 리용하면 우리는 음악을 가정에 일층 더 끌어 가정을 화락히 하고 환락한 분위기 속에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양과 품성이 향상되며 얼마나 원만한 인격을 맨드려 줄가 합니다. (중략) 이러케 정서교육을 밟아 그 품격이 고상해야지며 원만한 인격 도야에 원천이 된다는 것이 이 정서교육을 밟은 사람이 도덕성을 함양한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 가정적으로는 융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고 압서서는 사회적 내지 국가적으로 유위(有爲)의 인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한 깃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저절로 깃겨워지며 그것을 예상하기만 해도 갑작히 세상이 명량한 감이 듭니다.⁶²⁾

주경돈은 음악이 원만한 인격 형성의 기초이며, 도덕성을 함양하여 가정 내 조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음악이 밝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악보국주간을 기념하며 발표한 이 글은 ‘명량’을 개인적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에너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경호의 ‘건전’, 주경돈의 ‘명량’, 그리고 히라이데 히데오의 ‘음악은 군수품이다’는 모두 음악이 제국의 군국주의 이념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음악은 ‘건전’을 통해 도덕 질서를 형성하고, ‘명량’을 통해 대중의 사기를 북돋우며, ‘군수품’으로서 전쟁 수행에 복무하는 감정 정치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했다.

62) 주경돈, 「총후엔 명량한 음악」, 『매일신보』, 1941.6.3-6.6, 4면. 주경돈(朱敬頓)은 숙명고등여학교와 도쿄국립음악학교를 졸업한 성악가로, 조선음악협회와 대동악단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방송곡과 이동국단 등에서 가장 지도를 담당하였다.

미나미 총독은 ‘일본인이 되리라’를 총동원연맹 회의에서 거듭 강조하였으며, 내선일체의 궁극적 실현 방법이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 만들기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조선통치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는, 각하(閣下)와 명위(名位)의 협력을 으더 반도에서 될 수 있는 한의 방법과 수단을 취하여 로둔(魯鈍)을 변탈(鞭撻)하여 내선일체에 대한 기초를 오늘날까지 사와 온 것이나, 대체에 있어서 반도인의 「일본인이 되리라」 하는 동향의 기초는 성립되었다고 확신하고 맞습니다. (중략) 무력전에서도 역시 일촉즉발의 연웅(朕熊)입니다. 그리고 사상과 무력을 양자 합하여서 개전(開戰)하고 있는 곳은 세계에 단 일본뿐이다. 이와 가튼 주요(樞要)한 지위에 있는 일본에 우리들이 생을 향수하고 그리고 세계 중심의 일원이 되어 신건설을 담임하고 있다. 그리고 필경 그 핵심은 내선일체에 있습니다.⁶³⁾

여기서 ‘일본인이 되리라’는 명제는 문화적 동화나 정서적 일체감은 물론 조선인을 제국의 전쟁체제에 동원 가능한 신체와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선일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전(開戰)을 위한 징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래는 정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전시체제가 노래운동은 ‘건전’과 ‘명량’이라는 정서적 언어를 차용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동원을 은폐했고, 감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국민개창운동을 전개하며 표명한 ‘결전의 새 봄과 함께 국민은 누구나 명량하게 노래를 불러 이 전쟁을 싸워 이겨나갈 힘을 기르자’는 구호는 바로 감정의 언어들이 전쟁 동원을 미화하고 복무를 미덕으로 치환하는 작동 방식을 명확하게 드러낸다.⁶⁴⁾

사라 아메드는 감정 정치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신뢰하는 ‘사랑’이 본래의

63) 南太浪, 「연맹 본래의 사명」, 『총동원』 제1권 제2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7, 61-69쪽.

64) 「국민 개창의 밤, 내 이십육일 밤, 부민관 대강당에서」, 『매일신보』, 1943.3.21, 2면.

진면목을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이면을 감추는 방식으로 정치적 기획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정서적 장치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⁶⁵⁾ ‘사랑’은 종종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이면에 내재한 ‘증오’라는 모순과 긴장을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재구성된 감정은 사회적 미덕으로 장려되며, 그것을 구현하는 장소나 집단은 선의와 도덕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미화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감정을 긍정하고, 배제할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데 있다. 즉 특정 감정만을 선택적으로 긍정함으로써 통치에 유리한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전쟁 수행을 위한 감정 질서의 통제는 어떤 감정을 ‘국민다운 감정’으로 허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정치적 문제였다. 노래운동은 바로 이 감정 정치의 최전선에서 권력이 승인한 감정만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정서 통치의 장이었다. ‘명랑’과 ‘건전’은 탈정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감정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반면, 이러한 정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감정은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제되고, 그러한 배제는 다시금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음악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 동원에 대한 역할과 방법론을 모색했다. 현제명은 국민개창운동을 통해 명랑하고 청신한 정서를 진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임동혁은 명랑한 음악 창작을 독려함으로써 감정 질서를 이끌었다.⁶⁶⁾

3) 노래운동의 감정 동원과 정서 통제

노래운동이 감정 동원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아래의 기록에

65)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5, 267-283쪽.

66) 玄山濟明, 「樂壇一年, 京城厚生樂園の演奏活動及び國民皆唱運動を中心に」, 『綠旗』, 綠旗聯盟, 1943.12, 41-42쪽; 임동혁, 「시국과 음악」, 『신시대』 제1권 제10호, 신시대사, 1941.10, 132쪽.

서 확인할 수 있다.

오후 8시. 국경의 산에 해가 지고, 자줏빛 저녁이 토성동(土城洞) 마을을 덮을 무렵, 장토국민학교 운동장 한쪽에 둘러쳐진 야외 무대의 나무문 입구로, 지금까지 운동장에 모여 있던 관중들, 아이들, 청년들, 여성들, 그중에는 어제부터 이곳에 머물며 하루 종일 이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도 뒤섞여 안으로 들어온다. (중략) 째랑째랑째랑— 채금(韃金)이 울린다. 드디어 개막이다. 원래는 동라(銅羅)를 쳤지만 헌납한 탓에, 조선색이 짙은 채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막이 오르면 출연자 전원이 분장을 한 채 줄지어 서 있고, 야나가와(柳川) 대장이 사회를 맡아 객석 전원의 국민의례가 이어진다. 이어서 히노하라(檜原) 군이 지휘하고, 마이크를 통해 급작스럽게 합창이 시작된다. 그것이 끝나면 주최자 대표로 방호단의 가네모토(金本) 씨가 인사를 한다. 미숙한 국어로 말이 부족하고 논지도 다소 두서없었지만, 결전한 국민의 총력을 모으는 데에 건전한 오락이 얼마나 중요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열변은, 그 진심만큼 호의적으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개창(國民皆唱) 지도 순서가 시작된다. 야나가와 씨가 조선어로 국민개창운동에 대해 해설 형식의 인사를 한 뒤, 여배우 전원의 시범 합창과 악극단에서 왔다는 야스다 미노루(安田實) 군의 아코디언 반주에 맞추어, 히노하라 분페이(檜原文平) 군이 <아시아의 힘(アジャの力)> 1절을 지도하기 시작한다. 특이한 국어 발음에, 간간이 유머를 섞어가며 진행하는 그의 지도 방식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노련함을 보여주었고, 관중을 자연스럽게 노래의 학생으로 만들고 만다. “아! 거기 아저씨, 지금 안 부르고 계시죠?”, “글쎄요, 여성 좌석 쪽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자, 남성석 못지않게 힘차게 불러주세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쉽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시아의 힘> 같은 곡조를 절반 이상은 실제로 따라 부르게 만들었고, 비록 노래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어디선가 그 멜로디를 듣게 되면 “아, 저거구나” 하고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친근감을 심어주었음은 틀림없다. (중략) 지도가 끝나면 이어지는 순서는 노래 바라이어티 공연이다. 여배우들이 주축이 되어 번갈아 등장해 노래를 들려준다. <아침이다 힘차게(朝だ元氣で)>, <애국의 꽃(愛國の花)>, <구단의 어머니(九段の母)>, <군국의

어머니(軍國の母)>, <태평양행진곡(太平洋行進曲)> 등의 곡들 사이에 가끔씩 조선 민요도 끼워 넣으며, 관객에 따라 재치 있게 프로그램을 조절한다. 때로는 춤도 곁들여 관객의 관심을 끌어올리기도 한다.⁶⁷⁾

인용문은 야마메 민타로(山部巧太郎)가 기록한 조선이동극단의 국민개창 지도 현장에 대한 글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공연을 보기 위해 하루 전부터 대기하는 관객이 있을 정도로 이동극단의 인기는 상당했다. 국민의례로 공연의 막이 올랐으며, 방호단 대표는 국민 총력과 건전한 오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림 4> 관람을 위해 운집한 관중들

인사말을 전했다.⁶⁸⁾ 이어 여배우 전원이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무대의 분위기를 이끌었고, 가창 지도자는 여성과 남성의 합창 소리를 유머러스하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날의 지정곡인 <아시아의 힘>을 지도해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여기에 조선의 민요와 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문화적 친연성 또한 도드라지게 하였다.

가창 지도 과정에서는 합창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합창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

67) 「국민개창지도」, 『문화조선』 제5권 제4호, 동아여행사, 1943.8, 55-56쪽.

68) 이 시기의 의례는 오늘날의 국민의례와 성격과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 제국은 전시체제 강화를 위한 문화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궁성요배, 황국 신민서사 암송, 기미가요 제창 등을 충성의례로 채택하여 이를 다양한 사회 영역에 확산시켰다. 학교나 직장과 같은 제도적 공간뿐 아니라 공연 관람과 같은 여가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일상에 침투한 제국주의적 통치 구조를 실감하게 한다. 공연장에서의 의례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는 당시 활동한 연극인 김조성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고설봉 증언, 장원재 정리, 『증언 연극사』, 도서출판 진양, 1990, 90쪽. 방호단은 식민지시대 조선에서 공습 대비 훈련 등 전시 동원을 위해 조직된 관제 단체로 이동예술단의 순회공연에서도 질서 유지나 동원 지원 등의 방식으로 협조했다.

부 참사 가라시마 다케시(辛島曉)는 “같은 옷을 입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경험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락을 통한 감정의 공통기반 마련과 정서적 일체감 형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하였다. 소학교장 나카조노 겐조(中園源藏) 역시 합창의 감화력을 강조했으며, 가능한 자주 합창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교육의 핵심 과제가 ‘실행력 있는 국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교가보다는 기미가요나 군가류의 합창을 통해 국가적 연대감을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악평론가 김관 또한 합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합창운동을 통해 음악이 국민 대중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⁶⁹⁾ 이처럼 당대 지도자들은 합창을 공동체의식을 길러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가창 지도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정서적 동조와 결속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감정의 흐름은 통치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율되었다.

오락적 요소를 가미한 가창지도대의 활동은 조선인들에게 문화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 합창은 이 과정에서 감정적 동조를 이끌어내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통된 감정으로 각인시키는 매개로 작동하였다. 가창(歌唱)운동이 아닌 개창(皆唱)운동이라는 명칭이 채택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조선에서 인지도가 높은 당대 유명 음악가들뿐만 아니라 후지야마 이치로(藤山一郎) 같은 제국의 대중가수도 가창 지도에 동원하여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했다.⁷⁰⁾ 이들의 출연은 대규모 군중을 집결시키는 자극제가 되었고, 관람자들은 정해진 노래를 집단적으로 따라 부르며 감정 질서를 내면화했다.

이러한 감정 정치의 실천은 공식적인 개창운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

69) 「半島の藝術を語る 座談會」, 『綠旗』 제6권 제7호, 綠旗聯盟, 1941, 62-71쪽; 中園源藏, 「半島教育革新論」 4, 『綠旗』 제6권 제4호, 綠旗聯盟, 1941, 85-96쪽; 김관, 「국가의 신체제와 신음악의 건설」, 『매일신보』, 1940.9.24, 4면.

70) 「국민개창운동지도대 경기도에서 각 읍면으로 파견」, 『매일신보』, 1943.4.24, 2면; 「藤山一郎가 歌唱指導を行ふ」, 『조선신문』, 1941.3.4, 4면.

속되었다. 일본은 조선 성악가들로 구성된 가창지도반을 일본 내 후쿠이 현(福井縣)에 파견하여 6,000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노래 지도를 실시했다.⁷¹⁾ 이러한 사실은 노래가 전시체제하의 노동자에 대한 감정 통제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체제기에 전개된 노래운동은 ‘음악은 군수품’이라는 이념 아래 조선인을 제국의 질서 안의 ‘포섭된 타자’로 위치시키는 도구로 기능했다. 군국주의는 노래라는 가장 일상적이고 친숙한 오락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조율하고 충성과 복종의 감각을 일상에 침투시켰다. ‘건전’과 ‘명량’이라는 규범적인 정서 아래 애국심을 조형하고, 그 감정을 지원병, 노동자, 그리고 후방의 대중에게 전파했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음악의 정치적 기능에 주목하여 전시체제기 노래운동이 감정 정치를 수행한 선전 기체로서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조선문예회와 조선음악협회가 주도한 노래운동을 대상으로, 전시 동원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연계하여 제작·보급된 노래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노래에 대한 제국의 인식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통합과 결집을 유도하는 감정 정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술이 권력의 기획에 복무해야 했던 시대적 조건에서 그것이 격동의 현실을 온전히 재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노래운동이 권력이 요구하는 감정 질서를 구체화하고, 그것

71) 「가창지도반 파견」, 『매일신보』, 1944.9.23, 3면; 「가창 지도 호적, 반도전사를 격려」, 『매일신보』, 1944.10.11, 2면.

이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되며 전쟁 동원의 도구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래운동은 감정 정치의 구조를 선명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이 시기의 노래운동은 예술운동 일반이 지녀온 철학적 자율성이나 정치적 저항성과는 거리가 먼 관제적 성격이 강한 문화운동이었다. 겉으로는 조선인의 생활 윤리를 정화하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식민 통치 이념에 부합하는 감정 구조를 설계하고 주입하는 통치 전략의 일환이었다. 노래는 전시체제에 적합한 감정 훈육의 수단으로 기능했으며,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서를 조성하는 데 동원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당대 음악가들을 조직해 노래 창작과 가창 지도에 참여시켰고, 조선인 음악가 몇몇은 통치 기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도 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라는 각각의 전쟁 국면에서 조직된 조선문예회와 조선음악협회는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과 같은 관제 조직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래운동을 통한 감정 통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이들은 가요대회와 각종 강연회, 가창지도대, 라디오방송, 음반 및 노래집 발간 등을 통해 군국주의 노래를 체계적으로 확산시켰으며, 전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감정을 조선인의 감각 체계에 각인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이입된 감정은 어떠한 감정보다 훨씬 은밀하게, 그러나 더 깊이 있게 대중의 삶을 조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건전’과 ‘명량’이라는 정서는 이러한 노래를 정서적으로 포장하는 기표였다. 이러한 감정은 군국주의적 정서와 폭력성을 감추고 전쟁이 야기하는 공포와 불안을 억제하며, 후방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희생을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는 상징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그리하여 노래는 전장의 죽음조차 공동체적 영광의 서사로 치환하며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미화하였다.

감정 통제를 목적으로 한 노래운동은 대중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다

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직장과 공장, 학교와 백화점, 영화관과 라디오 방송, 농촌과 산간 마을에 이르기까지 노래는 가창지도반, 이동연예대, 부락 단위의 애국반 등 정치적 기획 아래 운영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다. 가창 지도자들은 정서적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합창에 주력하고, 정해진 음정과 박자, 규칙적인 호흡과 리듬, 통일된 목소리를 통해 감정을 조율하여 정서적 결집을 유도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통제 구조 속에서 외부로부터 조정된 감정을 자율적인 정서로 받아들이고, 감정 정치에 자발적으로 편입되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노래는 권위에 대한 순응, 후방 민중에게 요구된 절제와 헌신, 전쟁 동원 논리에 대한 공감과 같은 감정을 집단 정서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식민권력은 노래를 이용한 감정 정치로 결국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이 질문은 노랫말의 주제 구성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한 노래들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내선일체 이념이다. <애국행진곡>과 <일역의 결의>는 일왕 중심의 역사 인식을 강조하며 내선일체를 명예롭고 자발적인 사명으로 제시하여 일본 제국의 정체성에 정서적으로 동화시키려 했다. ‘일본인이 되리라’를 강조한 남총독의 연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두 번째는 충후봉공이다. <국민총력의 노래>, <애국반의 노래> 등은 절약과 헌신을 생활 윤리로 제시하며 전시체제에 부합하는 후방 국민의 위치와 역할을 정당화하였다.

세 번째는 총동원이다. <우리는 제국의 군인>, <어머니의 기원>은 전장과 후방의 일상까지 모두가 전쟁 이데올로기에 따라 동원되어야 한다는 정서를 고취했으며, 헌신을 자발적 감정으로 수용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전시체제기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음악적 측면에서도 일관되게 반영되었다. 대

부분의 곡은 일본 군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부점리듬이 강조된 2박 계열의 행진곡풍을 따르고 있었으며, 음악 지시어를 통해 명랑하게 부를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양상은 통제된 정서를 진취적 정서로 위장함으로써 노랫말에 내재한 이념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시키려는 작곡 전략이었다. 이처럼 전시체제기의 노래운동은 이념 선전의 매개이자 감정 정치를 실행하는 도구였으며, 작곡가와 작사가는 감정을 군수품처럼 생산하고 동원하는 전략가였다.

노래를 통해 집단적 감정을 형성하고자 한 전시체제기 노래운동은 예술이 어떻게 권력의 정서 질서를 매개하고 그것을 대중의 감각 속에 내면화시키는지 잘 보여주었다. 노래는 오락과 통제의 경계를 넘나들며 조선 민중의 감정과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었으며, 반복적인 합창을 통해 복종과 헌신을 일상화하는 효과적인 감정 통제 장치로 기능했다. 일본 제국은 입영 대상자에게는 생계 보장을, 이주 노동자에게는 일정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는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심리적 설득을 위한 상징적 장치에 불과했다.⁷²⁾ 노래운동은 이러한 명목상의 보상 약속과 심리적 설득이 결합된 동원 구조 속에서 일상을 감정 통치의 장으로 전환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

이 글은 노래를 매개로 한 감정 정치의 양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현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예술의 정치적 역할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윤리적 과제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 음악, 나아가 예술과 감정 정치의 관련성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72) 「학병 출진에 종로구 익찬위원 원호, “입영 전의 취직”알선, 장행회도 성대히 하자」, 『매일신보』, 1943.11.28, 3면; 「君の家族はしつかと護る, 出陣學兵よ後は憂ふな, 鍾路署で入營者の就職斡旋」, 『경성일보』, 1944.1.22, 4면; 「好條件に恵まれた 炭礦移住労働者, 第一回は六・七兩日出發」, 『부산일보』, 1934.11.5, 3면.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국민총력조선연맹 방위지도부, 『國體の本義と内鮮一體』, 1941.
내각정보부, 『주보』, 제50호, 1937.9.29.
조선총독부도서관, 『讀書』 제1권 제3호, 朝鮮讀書聯盟, 1937.
_____, 『讀書』 제1권 제4호, 朝鮮讀書聯盟, 1937.
『국민정신총동원 실시 개요』 제1집, 내각정보부, 1938.
『半島ノ國民總力運動』, 조선총독부, 1941.
『조선연합청년단발단식 기념 사진첩』, 조선연합청년단, 1938.
『朝鮮總督府 官報』 제3391호, 1938.5.10.
『총동원』 창간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
『총동원』 제1권 제2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
『총동원』 제1권 제5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39.
堀内敬三, 『日本の軍歌』, 日本音樂雜誌株式會社, 1944.
紀元二千六百年奉祝會 撰定, 小學校用 行進遊戲 『愛國行進曲』, 目黒書店, 1938.
辻田眞佐憲, 『日本の軍歌』 國民的舍の歴史, 幻冬舎新書, 2014.
『경성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조선신문』,
『조선일보』, 『綠旗』, 『문화조선』, 『신시대』

2. 단행본

- 고설봉 증언, 장원재 정리, 『증언 연극사』, 도서출판 진양, 1990.
박선희, 『메이지시대의 창가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변은진·장순순, 『전시체제기 여론통제(2)-관련기구와 조사』, 동북아역

사재단, 2022.

이충호 편역, 『조선통치 비화: 일제강점기 문화정치의 실상』, 국학자료원, 2012.

마사 누스바움·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1-3, 새물결, 2015.

사라 아메드·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윌리엄 레디·김학이 옮김, 『감정의 향해: 감정 이론, 감정사, 프랑스혁명』, 문학과지성사, 2016.

3. 논문

장태구·김수현, 「친일·군국주의 선동 국민개창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我等の歌－愛國歌曲集』」, 『근대서지』 제29호, 근대서지학회, 2024, 401-415쪽.

김창욱, 「일제 팻쇼체제기의 친일음악운동」, 『음악과 민족』 제10호, 민족음악연구소, 1995, 265-285쪽.

김희진, 「국가재건의 날실과 예술의 씨실:국민개창운동추진회」, 『역사문화연구』 제7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9, 159-188쪽.

노동은, 「노동은의 ‘알고 싶다’ 10: 조선음악협회는 어떤 친일단체이었는데?」 1, 『음악과 민족』 제14호, 민족음악학회, 1997, 48-57쪽.

이경분, 「식민지 조선의 음악문화에 나타난 쇼와천황의 청각적 이미지」, 『인문과학』 제96호, 2012, 209-244쪽.

이동순, 「일제말 군국가요(軍國歌謠)의 발표현황과 실태」, 『한민족어문학』 제59호, 한민족어문학회, 2011, 369-400쪽.

이종민, 「전시하 애국반 조직과 도시의 일상 통제」, 『동방학지』 제124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839-881쪽.

이지선,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음악정책: 국민가의 제정과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9호,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269-290쪽.

_____, 「제국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음악정책 2: 국민개창운동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4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7-26쪽.

황수임 · 이순욱, 「1950-1960년대 국민개창운동의 전개와 논리」, 『인문과학』 제96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5, 137-180쪽.

李有姬, 「明治・昭和軍歌にみる近代の特徴: 楽曲・テーマ・言語表現を中心に」, 大阪大學校博士論文, 2017, 1-256쪽.

<Abstract>

The Song Movement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under the Wartime Regime
(1937 - 1945)

Hwang, Soo-Im*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ong Movement during the wartime regime functioned as a propaganda mechanism that enacted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National Singing Campaign, in which the Joseon Literary and Arts Association and the Joseon Music Associ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Joseon League for National Mobilization, took the lead. The research collected and analyzed song scores created and disseminated through this campaign, alongside their political background, collaborative structures, modes of distribution, lyrical themes, and musical features. Newspapers, magazines, official publications, and materials issued by mobilization organizations were cross-examined to identify the intersections between music and politic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Song Movement organized public emotions by promoting the affective codes of Dutifulness (*geon-jeon*) and Cheerfulness (*myeong-rang*). Songs performed at various events and collective activities encouraged obedience, devotion, and acceptance of wartime mobilization as natural sentiments, thereby subordinating the rhythms of everyday life to the

* Pusan National University

wartime regime. In particular, well-known Patriotic Marches, together with themes such as *naisen ittai* (Japan - Korea unity), rear-area service, and total mobilization, were central to the lyrics. Musically, dotted rhythms in duple-meter forms modeled after Japanese military songs were widely employed, and the activities of the Vocal Instruction Corps further facilitated the emotional internalization of militarist ideology.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wartime musical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Moreover, by reflecting on the structural mechanisms of the Song Movement that enabled emotional mobilization, it invites renewed consideration of the social functions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of art today.

Key Words: Song Movement, National Singing Campaign, Joseon Literary and Arts Association, Joseon Music Association,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Patriotic Marches, Dutifulness, Cheerfulness, Vocal Instruction Corps, Joseon League for National Mobilization

■ 논문접수 : 2025년 7월 28일

■ 심사완료 : 2025년 8월 17일

■ 게재확정 : 2025년 8월 17일

